

무주군, 치매안심가맹점 운영

관내 약국·이·미용실 위주 30개소 지정... 치매극복 활동 적극 동참

무주군보건소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30개 사업장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정된 치매안심가맹점은 사업장 구성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했으며, 향후 지역 사회 치매극복활동 및 치매안식개선에 동참한다.

치매안심가맹점은 지난달까지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자주 찾는 약국과 이·미용실 위주로 가맹점을 지정했으며, 지역사회 치매극복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다.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관심과 배려, 정보제공과

함께 배회 어르신을 발견할 경우 신속한 신고와 임시 보호역할 등을 맡게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안심가맹점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안내, 치매관리서비스 소개 등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안심가맹점 등록 및 스티커 부착, 치매환자 대응 가이드북을 배부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속적으로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확대해 지역사회 치매안정망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무주군 치매안심센터는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치매조기검진,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환자 돌봄 토크 운영,

치매안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극복에 힘쓰고 있다.

무주군 보건소의료원 치매안심팀 박인자 팀장은 "치매는 함께 극복해야 하는 질병인 만큼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치매안심가맹점으로 지정해 더 가까운 곳에서 치매를 돌볼 수 있는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역 사회가 관심을 갖고 치매극복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세한 사항은 무주군치매안심센터(063-320-860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춘성 진안군수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 개최

진안군, 취약시설 관련 부서장들과 대책 수립 대응·점검 강화

진안군은 지난 10일 군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춘성 진안군수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긴급대책회의는 최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7000명을 넘어가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따라 사적모임 제한, 방역패스 적용시설 확대,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 독려, 급증한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의 관리 등 주요 방역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소집됐다.

군은 방역 강화를 위해 취약시설 관

련 부서장들과 분야별·상황별 대책에 수립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여기에 종교시설, 학교·학원 등 교육기관, 노인·장애인·여성 복지시설,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관광시설, 요양병원 등 주요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도 한층 강화된다.

전춘성 군수는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각종 모임과 행사, 이동 자제 및 적극적인 백신 접종 등에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군민 친화형 복합문화공간 '장수군립도서관' 개관

개관식 갖고 시범운영기간 거쳐 내년 1월 정상개관 목표

장수군립도서관이 새 단장을 마치고 최신시설의 군민 친화형 복합문화공간 도서관으로 거듭났다.

군에 따르면 장수군은 지난 10일 장계면에서 장수군립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실시한다.

개관식에는 장영수 군수를 비롯한 김용문 군의회의장, 박용근 도의원, 기관단체장, 관내 학부모운영위원, 지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며 진행됐다.

장수군립도서관은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용공간이 협소해 군민들의 불편

이 제기됐던 곳으로 군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장계면 중심지로 위치를 옮겨 군립도서관을 이전 건립했다.

지난 2019년부터 공사를 시작해 총 사업비 53억원이 투입된 장수군립도서관은 지식정보, 평생교육, 문화공간 등 모든 역할을 모두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며, 지하 1층, 지상3층의 대지면적 2,598㎡, 연면적 1,380㎡의 규모이다.

지하 1층에는 기계실이 조성됐으며, 지상1층에는 유아 및 어린이자료실, 독서계단,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했다. 지상 2층에는 종합자료실, 문화교육

실, 다목적실, 열람공간 등이 위치해 있으며, 지상 3층은 보존서고로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공간으로 만들어졌다.

장영수 군수는 "민선7기 공약 중 하나였던 장수군립도서관 개관이 오랜 공사기간을 거쳐 군민 중심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돼 매우 기쁘다"며 "충분한 도서와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마련해 군민들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 군립도서관이 장수군의 랜드마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군민이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문화예술 분야에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부정 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장수군은 연말연시를 맞아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라북도 및 동물위생시험소와 합동으로 축산물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냉동식품을 해동해 냉장 포장용 제품으로 생산·판매 ▲포장용 제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식육 등 축산물 운반과정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판매 및 적정처리(폐기표시 등)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자체위생관리 기준서 작성·운영 여부 등이다.

또한 점검시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해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 및 교육 등을 계도 하고, 위생에 중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상습,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실시해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원문)가 찾아가는 봉사 행정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진안군에서는 세 번째 재난지원금을 전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부터 재난지원카드 배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진안읍은 마을별 배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금 신청 시작일부터 1주일 간 공무원으로 구성된 마을 담당관 제도를 실시하여 7개 마을로 직접 찾아가 현장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의 혼잡방지와 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오전 8시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주민 대다수가 직장인인 고항마을아파트의 특성을 위해 오후 7시까지 연장 지급을 하는 등 찾아가는 지급 서비스를 적극 시행하고 있어 읍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읍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봉사행정 돋보여

진안군 진안읍 행정복지센터(읍장 우

진안읍 소재지 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 추진

진안군은 진안읍 소재지 주변의 야간경관 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야간 경관개선사업은 군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보장하고, 특색 있는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2023년까지 3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총 예산 30억원을 들여 진행된다.

올해에는 시설비 10억원(특별교부세6억 4천4백)을 투입해 쌍다리에서 학천교까지 1km의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이 구간은 기존에 설치된 조명이 노후화돼 미관 저해는 물론 전체적으로 어두워 주민들이 야간 보행 시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야간보행경관개선이 시급한 곳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구간을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쌍다리에 위치한 석재 교량의 지지부한 구조물을 제거하고 야간에도 진안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LED바 조명과 투광등을 설치했다.

또한 진안교 쌍다리 위에는 진안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한 시계탑을 제작하고 시장 주변 산책길에 휴게공



간·반디조명·진안의 흥삼을 형상화한 디자인 열주등을 설치해 군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군은 이번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낙후된 도심 경관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향상시켜 진안군의 이미지를 제고함과 동시에 색다른 야간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천 주변이 야간에도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우리군민의 특색있는 경관개선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무주군, 가로등관리 일원화 추진

무주군은 가로등 관리체계를 일원화 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그동안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데다 신속한 출동과 고장 처리가 어려워 고장 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군은 올해 가로등관리 일원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황 파악을 실시한 결과 우선 민원봉사과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 총 268개를 건설과에서 일괄 관리하기로 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4,900개에 이른다. 나머지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의 일원화는 후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각 관리부서가 가로(보안)등의 점멸기시스템을 확인 후 동일한 점멸기시스템으로 교체하고 주무부서로 관리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주민들의 야간 보행시 안전한 통행권이 조성될 전망이다. 또 가로등 관리가 체계화될 경우 가로등의 정확한 위치 및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한 고장 처리가 가능하며, 전기요금 절약효과도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사랑장학재단 생활과학교실 '호응'

재단)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은 균등한 과학교육 기회의 평등실현, 과학문화 확산, 4차산업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2016년도부터 시작한 생활과학교실이 올해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생활과학교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진안군과 협력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과학 체험 프로그램이며 과학기술진흥기금과 복권위원회 기금을 재원으로 전군적으로 34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진안중앙초·안천초·부귀초·진안여중·진안중·용담중 총 6개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운영기관인 전북대학교 생활과학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생활 속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 알리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